

# 척박한 마운드 ... 길 잃은 KIA



주력선수들 고령·부상·부진...용병카드도 실패

양현종·임준섭만 내년 기약...장기적 플랜 시급

시즌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'호랑이 군단' 에겐 속제가 산적했다. 시간이 갈수록 마운드 고 민은 두드러지고 있다.

'투수 왕국'이라는 옛 명성은 말 그대로 옛 이야 기가 됐다. 타이거즈표 선수 육성과 관리에 실패 하면서 다음 시즌을 예측할 수 없는 '외인부대'로 전락했다. 지난 시즌 최향남·신승현 등 외부 자원에 의지했던 KIA는 올 시즌에도 최영필·김태영·김병현으로 겨우 마운드를 꾸려오고 있다.

현재 선발진에서 내년 시즌을 기약할 수 있는 인물은 양현종·임준섭 단 두 사람이다. 뒤늦게 갑 잡은 송은범은 FA(자유계약)를 앞두고 있고, 외 국인 선수 카드는 변수가 많다. 김병현과 선발후

보인 서재응은 적지 않은 나이가 부담이다.

김진우의 활용방법도 찾지 못했다. 시범경기에서 부상을 감안하더라도 김진우의 올 시즌은 실 망스러웠다. 중요한 순간마다 부진하며 마운드가 흔들렸다. 여유 없는 마운드 탓에 2군에서 차분하 게 시즌을 준비하게 하는 것 대신 보직 이동을 통 해 김진우의 감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 다. 덩달아 송은범까지 선발-불펜-선발을 오가느 라 마운드 변동이 잦았다.

불펜의 미래도 밝지는 않다. 베테랑 최영필·김 태영의 '감각 활약'이 내년 시즌에도 이어질지 장 담할 수 없는데다 좌완 심동섭은 부상 여파로 필 승조로 확실치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.

9개 구단 유일하게 선택한 외국인 선수 마무리 카드도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웠다. 두 명의 외 국인 선수 출전이라는 규정 탓에 '필과 어센시오' 의 달레마에 빠져 전력을 100%로 활용하지 못했 다. 내년 시즌을 책임질 마무리 후보를 찾지 못했 기 때문에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.

취약한 마운드 탓에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도 KIA는 장기적인 미래 대신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했다. 올 시즌에도 '즉시 전력감'을 언급하 며 7명의 투수 중 6명을 대졸로 채웠다. 넥센이 팀 컬러에 맞는 '육성'을 목표로 7명의 고졸 투수를 선택한 것과는 반대다.

4년의 경험이라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게 KIA의 현실이다. 최근 대졸 신인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임준섭과 박지훈. 올 시즌이 불 투명했던 임준섭은 마운드 대란 속에 기회를 잡으 며 든든한 선발로 성장했지만 박지훈은 한 시즌 필승조로 활약한 뒤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. 2년제 동강대를 졸업한 김지훈과 박준표가 그나마 가능



김진우

송은범

김병현

성을 보여준 정도다. 군복무에 대한 부담감도 커 서 구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도 KIA의 취약점으로 꼽힌다.

KIA는 2군에서 선발 수업을 받은 한승혁이 팔 껍치 부상에서 벗어나자마자 1군으로 불러들이는

등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. 혼돈의 순위 싸 움이 전개되면서 내년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상 황은 아니다.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만큼 벤 치와 구단의 고심과 계획이 필요하다.

/김여울기자 wool@kwangju.co.kr

## 이용대-유연성

### '기분좋은 출발'

####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 16강 진출

한국 셔틀콕 남자단식의 간판 이용대(삼성전 기)-유연성(국군체육부대)이 2014 세계개인배드 민턴선수권대회 첫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.

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인 이용대-유연성은 28 일(한국시간)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회 32 강전에서 레이먼드 텀-글렌 워프(호주)를 2-0 (21-10 21-14)으로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.

지난해 10월부터 국제대회에서 남자복식조로 호흡을 맞춰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는 처음으로 함께 출전한 이용대-유연성은 세계랭킹 48위인 한 수 아래의 상대를 28분 만에 제압하고 우승 도 전을 위해 순항했다.

남자복식 세계랭킹 6위 김사람-김기정(이상 삼 성전기)도 32강전에서 프라나브 제리 초프라-아 크사이 데위카르(인도네시아)를 2-0(21-15 21- 17)으로 꺾었다.

고성현(국군체육부대)-신백철(김천시청)도 로 빈 미들란-로스 스미스(호주)에게 2-0(22-20 21- 10)으로 완승했다.

여자복식 32강전에서는 김하나(삼성전기)-정 경은(KGC인삼공사)이 재클린 관-그로나 소머 빌(호주)을 2-0(21-10 21-9)으로 눌렀다.

장예나(김천시청)-김소영(인천국제공항공사), 이소희(대교)-신승찬(삼성전기), 고아라-유혜원 (화순군청)도 모두 여자복식 16강에 올랐다.

남자단식의 손완호(국군체육부대·세계랭킹 7 위)는 사타와 풍나이랏(미국)을 2-0(21-6 21-12) 으로 완파했고, 여자단식 세계랭킹 5위 배연주 (KGC인삼공사)는 카린 슈나제(독일)를 2-0(21- 18 21-14)으로 누르고 16강에 합류했다. /연합뉴스

## 류현진, 출격 이상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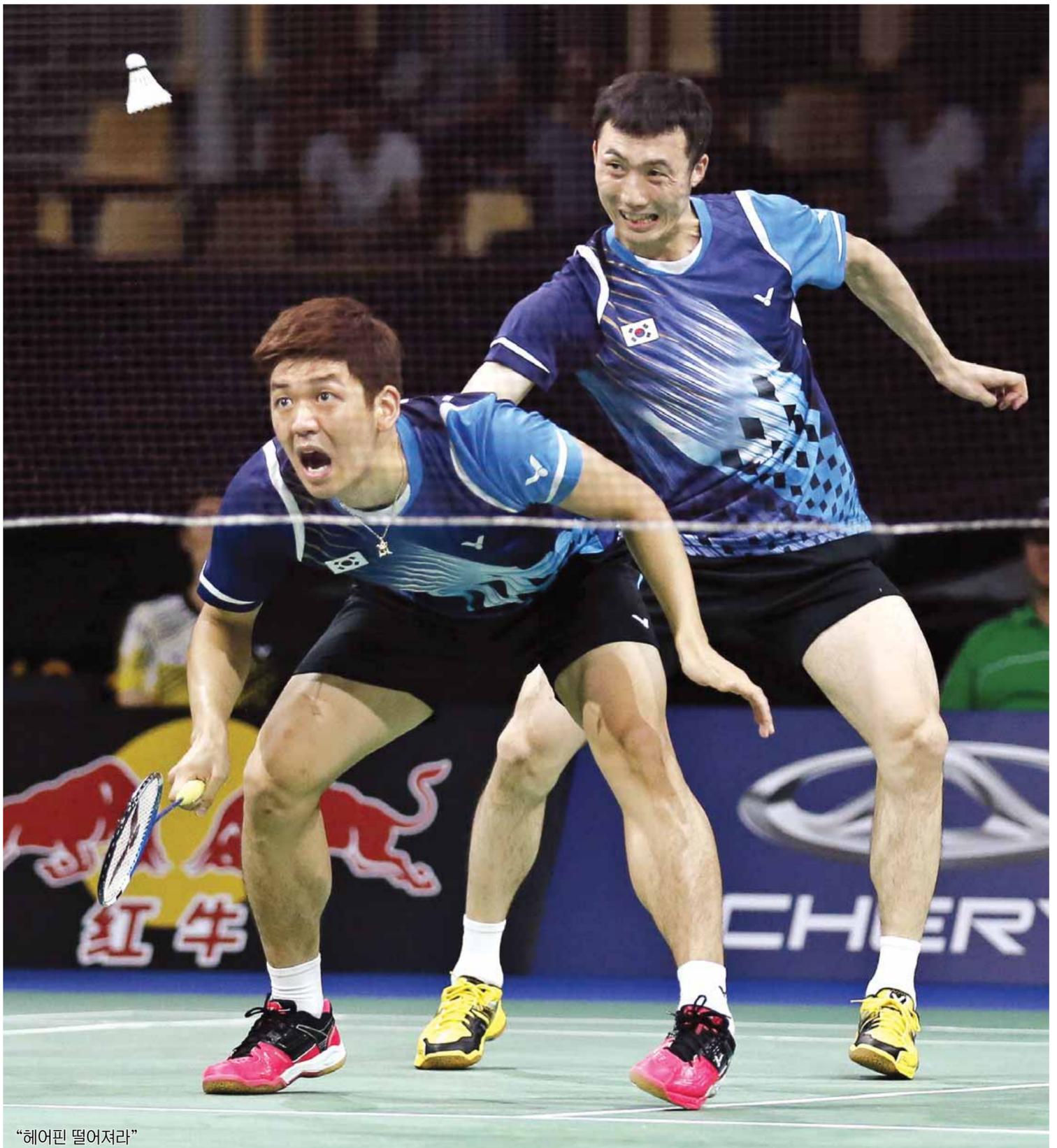
### 2이닝 시뮬레이션 투구 통증 못느껴

'코리아 몬스터' 류현진(27)은 27일(현지시간) "오늘 2이닝 동안 시뮬레이션 게임 투구를 했는 데 통증을 전혀 못 느꼈다"면서 이번 주말에는 출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류현진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 이어몬드백스 간 경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. MLB닷컴은 전했다.

이에 따라 류현진은 이르면 오는 31일 샌디에 이고 파드리스와의 3연전 시리즈 최종전에서 선 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. 류현진은 지난 13 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 중 오른쪽 엉덩이 중둔근과 이상근 염좌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(DL)에 올랐다.

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매팅리 감독과 릭 허니 컷 피칭 코치는 이날 류현진의 시뮬레이션 투구 를 점검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. 류현진은 쉽 고 편안하게 던졌으며 부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MLB닷컴은 덧붙였다. /연합뉴스



"헤어핀 떨어졌다"

이용대(앞)와 유연성이 2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14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32강전에서 레이먼드 텀-글렌 워프(호주)와 경기를 하고 있다.

/연합뉴스